

# 해 외 출 장 복 명 서

|                        |   |   |     |   |         |     |
|------------------------|---|---|-----|---|---------|-----|
| 출 장 자                  | 소 속   | 동향분석팀   | 직 위 | 연구<br>위원                                | 성 명     | 곽숙희 |
| 출장기간                   | 당 초   | 2007년 8월<br>10일-21일   | 출장지 | 당<br>초                                  | 아프리카 수단 |     |
|                        | 변 경   | 2007년 8월<br>10일-20일   |     | 변<br>경                                  | 상동      |     |
| 출장목적                   | MDG 달성을 위한 ODA의 성주류화를 위한 전략개발을 위한<br>수원사례국 현장 조사            |   |     |   |         |     |
| 경비부담                   | 우리원 부담(기본연구사업비, 연구관련사업비, 수탁연구사업비)<br>( 연구관련사업비 4,646,540 원) |   |     |   |         |     |
|                        | 주최측 부담  |   |     |   |         |     |
| 주최기관                   |   |   |     |   |         |     |
| 방문기관                   |   | 면담자   |     | 협의사항                                    |         |     |
| WFP                    |   | Mr. Justin Bagrishya, Senior Officer of WFP                                     |     | 수원국의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현황<br>및 성 주류화 사업에 대한 조사 |         |     |
| DFID                   |   | Ms. Klizimal Lowes, GoSS and DFID Teamleader,                                   |     |   |         |     |
| GTZ                    |   | Ms. Valeska Onken, Senior Reintegration Officer, GTZ, Southern Sudan            |     |   |         |     |
| UN DDR                 |   | Mr. Karambizi Evariste, Planning Officer, UNMIS(United Nation Mission in Sudan) |     |   |         |     |
| UN Gender affairs Unit |   | Ms. Theresa Kambobe, Regional Gender Affairs Officer, UNMIS,                    |     |   |         |     |

상세한 업무처리 및 세부내용은 별도 불임

2007 . 8 . 31 .

출 장 복 명 자 : 곽숙희

## 해외 출장 보고서

(MDG 달성을 위한 ODA의 성주류화를 위한 전략개발)

동향분석팀 연구위원 곽숙희

가. 과제명: 'MDG 달성을 위한 ODA의 성주류화를 위한 전략개발': 외국의  
선진사례 비교연구

나. 일시 및 장소: 2007년 8월 10일-8월 20일, 수단

다. 목적: 1. ODA의 외국 사례 연구  
2. 수원 국가에서의 현장 조사

라. 해외출장세부일정(수단)

| 날짜      | 출장일정                   | 참조  |
|---------|------------------------|---|
| 8/10(금) | 인천 출발                  |   |
| 8/11(토) | 수단 주바 도착               |   |
| 8/12(일) | WFP                    | Mr. Justin Bagrishya<br>Senior Officer<br>WFP   |
| 8/13(월) | DFID                   | Ms. Klizimal Lowes<br>GoSS and DFID<br>Teamleader<br>Plot 31-3k South, 1st class<br>residential Area, Juba Town<br>South, Jub, Sudan<br>mobil: 249 912 32 313<br>+256 477 123 425<br><a href="mailto:klouwes@bsf-secretariat-sd.org">klouwes@bsf-secretariat-sd.org</a> |
| 8/14(화) | GTZ                    | Ms. Valeska Onken<br>Senior Reintegration Officer<br>GTZ, Southern Sudan<br>Valeska. <a href="mailto:onken@gtz.de">onken@gtz.de</a>   |
| 8/15(수) | UN DDR                 | Mr. Karambizi Evariste<br>Planning Officer, UNMIS(Untied<br>Nation Mission in Sudan)<br>email: <a href="mailto:karambizi@un.org">karambizi@un.org</a><br>Tel: +24 9914315319  |
| 8/16(목) | UN Gender affairs Unit | Ms. Theresa Kambobe, Regional<br>Gender Affairs Officer, UNMIS,<br>Juba, Sudan<br>email: <a href="mailto:kambobe@un.org">kambobe@un.org</a>   |

|         |              |   |
|---------|--------------|---|
|         |              | Tel: + 249 18 708 2413<br>or <a href="mailto:kambobetheresa@hotmail.com">kambobetheresa@hotmail.com</a> |
| 8/17(금) | Field Survey |   |
| 8/18(토) | 수단 주바 출발     |   |
| 8/20(월) | 인천 도착        |   |

#### 마. <2007년도 방문조사 질문지>

안녕하십니까.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대한민국 국무조정실 산하 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로서 정부의 여성정책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입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MDG 달성을 위한 ODA 성 주류화 전략개발”이라는 연구 과제를 진행 중에 있으며, ODA의 성 인지적 분석과 ODA의 성 주류화를 위한 정책 개발을 위해 귀 기관의 경험을 듣고자 합니다.

한국 정부는 최근 ODA 사업을 질과 양의 측면에서 혁신하려고 합니다. 이에 선진 공여국의 원조정책에 대한 비교연구와 수원국의 입장에서 바라본 원조의 성 인지적 분석을 통해서 한국 정부에 맞는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입니다.

이번 방문조사를 통하여 선진공여국의 원조가 구체적으로 수원국에서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과연 여성은 최종적인 수혜자가 되고 있는지, 귀 기관의 원조정책 성 주류화 및 여성을 위한 에 대해 분석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귀 기관에서 수행하는 ODA 사업이 수행되고 있으며, 성인지적 관점과 어떻게 통합되고 있는가와 향후 발전 가능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한국의 ODA의 성 주류화를 위한 전략을 개발하는데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귀기관의 협조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1) 개발원조 사업의 주요 내용은 무엇이며, 어떠한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는가?
- 2) 성주류화나 여성을 위한 사업을 위해서 성별분석은 실시하고 있는가?
- 3) 젠더 전문가의 충원 혹은 양성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 4) 원조기구와 수원국, 혹은 수원국의 사람들과의 의사소통 메카니즘은?
- 5)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를 이루었는가: 사업내용, 프로그램, 투입 대비 결과 등
- 6) 성 주류화 성공과 실패 요인은 각각 무엇이며, 장애 요인 극복 방안은 어떻게 모색하고 있는가?
- 7) 사업의 계획, 집행, 평가 등 전 과정을 평가하고 있는가?

- 8) 성 인지적 관점에서 평가하는 도구가 있는가? 있다면 어떠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가?
- 9) 한국 정부나 원조기구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있다면 무엇인가?
- 10) 한국 정부나 원조기구가 이 지역에서 진행하기는 원하는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우선순위를 두고 진행하기를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혹은 추천하고 싶다면 무엇인가?

## 바. 면접 및 회의 내용

### A. WFP(World Food Programme)

#### 사업수행 방식의 문제

-원조가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는 가시적 개선이 중요하다. 실제로 개발원조의 규모는 크지만, 이것은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로 분배되고 있지 않다. 많은 공여기구들이 큰 규모의 원조를 하고 있으나, 이것은 정부로 전달되고, 실제로 사람들 일상생활을 변화하는 데 쓰이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자원의 공정한 분배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수단의 경우, 예전대 도로의 건설을 통해서 가시적인 발전이 보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계획은 이미 그 기획 당시에 이러한 도로의 건설을 통해서, 환경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등이 고려되지 않았다. 수단 남부 주바 지역의 도로 건설이 그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 도로는 홍수가 났을 경우에, 주바 지역 마을들을 고립시키는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개발원조가 단지 도로건설에만 초점을 맞추었지, 이러한 도로 건설을 통해서, 이 곳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 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향후 개발원조에 대한 기대: 교육과 지도력의 중요성

-아프리카의 발전을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교육, 과학, 기술이라고 볼 수 있다. 왜 한국은 전쟁과 가난 이후 오늘날과 같은 경제 성장을 이루었는지 분석해보면, 교육의 역할이 크다. 아프리카와 같은 기본적인 삶의 요구가 충족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무엇보다도 성장이 중요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소위 강력하며, 훌륭한 지도력이 중요하다. 말하자면, 훌륭한 지도자를 통해서, 계획을 입안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르완다의 경우, 내전과 인종청소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된 지 10년 이 후 지금은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고, 정부의 30% 이상이 여성으로 그 대표성을 보여

주고 있는 발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발전은 교육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ICT 분야의 경우에는 케냐나 우간다와 같은 주변국가의 사람들이 르완다에 와서 교육을 받을 정도이다 많은 고등교육 기관의 설치를 통해서, 르완다는 물론 주변국가의 고급인력을 르완다로 유인하는 교육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물론 아프리카의 우수한 고급인력이 어떻게 아프리카에 남아서,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봉사하도록 하느냐 하는 것은 커다란 과제이다. 결국 이들은 자신들의 가족들에게 자신들의 수입일부를 보조하는 형식으로 자국에 이익을 주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 이러한 인력이 미국이나 유럽 등 자신의 출신지역을 떠나지 않고, 어떻게 자신의 지역에 흡인할 것인가가 향후의 과제로 남아있다.

## B. DFID

### 사업의 수행방식 및 분야

-DFID는 보다 직접적으로 주민들이 원조사업으로 인한 발전의 효과를 갖게 하기 위해서, 14개의 NGO를 통해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분야는 기본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기초교육, 물, 건강 등과 연관되어 있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사업의 규모는 그래서 작고, 주민들에 대한 효과가 직접적으로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식수, 건강, 보건, 교육 등과 같은 사업이 대부분이다.

-식수, 기초교육, 건강이나 보건과 같은 사업은 일차적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여성들은 많은 혜택을 입는다는 점에서 여성을 위한 프로젝트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것은 무엇보다도 MDG의 사업의 목표 가운데 양성평등과 유아 및 산모 사망률을 줄이는 데 기여한다고 본다.

-학교에서는 여아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본적인 보건교육을 실시한다.

### 젠더 분석

-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젠더 분석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DFID 본부에서 요구하는 모든 가이드라인을 다 수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역의 실정에 맞추어서 진행한다. 여성을 위한 사업 혹은 성주류화의 지표로서는 이곳 수단에서는 여성들의 참여도를 고려한다. 가령 훈련프로그램 혹은 회의에 여성들이 얼마나 참여했는 지를 고려한다.

### 장애

- 그러나 문화적, 전통적으로 여성의 대외활동이 이곳 수단에서는 자유롭지 못해서,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여성들이 참여하지 않아서, 200여명 참석자 가운데, 여성참여자 한사람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한번 여성들이 참여한 경우, 이들은 지속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는 장점이 있다.

- 많은 경우 이 곳 지역의 사람들은 프로젝트나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참여율이 낮다.

- 지난 20여 간의 전쟁으로 또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 없는 것 역시 문제이다.

- 교육프로그램의 경우, 언어가 하나의 장애이다. 남부수단에만 많은 지역 언어가 있어서, 통역을 통해서 실제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

#### 성공

- 사업의 효과를 증대하기 위해서 교육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학부모 협회나 지역 공동체를 최대한 활용하여, 건강과 보건에 대한 인식제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때로는 많은 여성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도 한다. 음식제공 등과 같은 것을 통해서 참여를 유도한다.

- 여성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 평가

- 매 분기별로 실무위원회를 통해서, 사업 진행과정을 평가하고 있다.

#### 원조사업에 대한 향후 기대사항

- 많은 프로젝트들은 원조의 규모면에서 볼 때, 너무나 큰 프로젝트거나 혹은 너무나 작은 프로젝트 이어서, 중간규모의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내야 한다.

### C. GTZ

#### 사업 수행방식 및 분야

-UNHCR과 협력사업 성격으로서 사업을 수행하며, GTZ의 사업을 수행하는 인력 역시 임금의 75%는 UNHCR에서, 25%는 GTZ에서 분담하는 형식이다.

-오랫동안 전쟁으로 많은 난민들이 발생하였고, 난민들이 본국으로 돌아오면서, 이들의 사회적 재통합을 위한 사업을 수행한다. 난민들의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통합을 만들어 내는 것이 주요 사업내용 중의 하나이다. 특히 이들이 다시금 경제 활동을 통해서 가게의 수입을 증대하도록 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며, 직업훈련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 여성을 대상으로는 소상공인으로서 사업할 수 있는 기술 훈련을 실시한다. 또한 소규모의 대출을 줄 수 있는 일종의 협동조합 역시 실시하고 있다, 가령, 공동으로 출자해서, 가축이나, 농업 도구들을 사서, 새로운 사업에 투자할 수도 있도록 상호 부조하는 사업들은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반응이 좋은 편이다.

- JICA와 더불어 Multi-Service Training을 제공하는 센터에서는 오랫동안 수단을 떠나 살던 사람들이 통합과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서 6개월 정도 훈련을 실시한다.

#### 사업수행 전략

- 젠더 이슈를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에게 호소하여, 이들의 지지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물론 이러한 과정은 특히 처음에는 쉽지는 않지만, 남성들의 지원이 있을 때, 여성들은 훈련프로그램의 참여가 가능하며, 이들의 지속적인 참여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남성에게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것은 필요하다.

-프로그램에 대한 여성 참여의 경우, 실제로는 110명의 참석자 가운데, 단 1명만이 여성인 경우도 있으나, 이곳 수단의 경우, 이 한명의 여성의 참여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직업교육의 경우에는 자동차 수리, 목수 등 남성 중심적인 직업이 많으며, 여성의 경우, 행정보조와 같은 일을 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직업 교육을 통해서, 기존의 여성의 역할과 남성의 역할을 고정화하는 위험이 있기는 하다.

-여성들의 경우 전통적인 문화 수공예품을 만드는 교육을 통해서, 가게수입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재봉틀, 바느질을 가르치고 있다.

-여성의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경우, 실제로 가게 수입을 증대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남성들의 경우, 설령 수입이 생기더라도, 술을 마시는 등 가게수입을 도움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교육과 훈련을 할 때, 이러한 점에서 성인지적 접근은 중요하다. 여성의 경제활동을 통한 수입을 증대하는 훈련은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여성의 문맹률은 거의 98%에 가깝다. 이들이 실제로 아주 기본적인 영



어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영어교육을 통해서, 이들의 문맹률을 퇴치하는 것 역시 중요한데, 실제로 영어 훈련에 참여하는 여성도 5% 미만이기 때문에 이들의 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이나 교육용 교재들이 필요하다.

#### 사업의 수행의 기준

- 어떻게 개발원조 사업을 통해서, 지역공동체가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삶을 누릴 수 있느냐가 고려된다.
- 또한 사업의 효과가 어떻게 다차원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지 역시 고려대상이 된다.

#### 성공

- 여성들에게 재봉틀, 수공예를 위한 기술을 훈련하고, 이들이 학교의 유니폼을 만들도록 하여, 수입을 증대하였다 증대된 수입으로 다시 옷감을 사서, 더 많은 학교의 유니폼을 만드는 일을 하게 하여, 소위 소자본으로 어떻게 자본을 운영할 수 있는 지를 훈련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여성의 역량강화는 물론, 가계수입이 증대하는 효과를 거두게 되었다.

#### 평가

-BMZ이나, GTZ의 정책의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현장의 상황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가령, 평가에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양적 평가에 따라, 여성의 역량강화 등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지만, 질적 부분의 평가가 이러한 지역에서는 더 중요한 것 같다. 가령 110명의 교육 훈련자 중 여성의 참여자는 한명이었는데, 한 명이 참여하였기 때문에, 양적 평가에 따르면, 여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평가받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단 한 명의 여성이 참여한 것 자체만으로도 수단 남부지역에서는 커다란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 여성이 얼마나,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다른 여성은 물론 지역 공동체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 양적평가만이 아니라, 질적 평가가 필요하다.

#### 장애

-사람들의 독립성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특히 개발원조 사업에서 이곳지역의 사람들의 태도, 의식이 가장 큰 장애라고 본다. 따라서 이들의 의식이나, 태도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 원조기구에 대한 기대 사항

-또한 원조기구 혹은 소위 선진 국가들의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태도 역시 변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늘 매스매디어나, 공여국가의 빈곤지역 혹은 전쟁과 분쟁을

경험한 사람에 대한 태도는 한사람의 삶의 주체가 아닌, 희생자로서만 본다는 점이다. 그러나 사실은 이들은 희생자가 아니라, 전쟁과 분쟁, 갈등과 빈곤 속에서 살아남은 일종의 강한 생존능력이 있는 생존자라는 것이다. 생존자라는 관점에서 공여국가와 수원국가의 동반적인 협력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오히려 공여국가는 수원국가의 피해자로서의 의존성만 키울 수 있다.

- 젠더는 단지 여성만을 함의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젠더는 동시에 남성의 문제를 함의하는 것임을 중요하다. 특히 남성으로서 책임을 강화하며, 사회적 책무를 다하도록 교육하고 훈련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이를 위한 교육 자료가 필요하다.

- 사업을 직접적으로 수행하기 보다는 수원국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즉 이들 정부, 행정부, 시민사회단체 등 이들의 역량강화를 통해서, 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 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여성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남성을 교육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단지 의식제고 만이 아니라, 이들을 실질적으로 교육하고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전문적인 훈련가 및 교재가 필요하다.

- 수원국 현지에서 가능한 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사업 분야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령, 이곳의 기후를 고려하여, 태양열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발전소나, 쓰레기 활용과 운영, 화장실 사업 등이 그러하다.

- 또한 성인들의 문맹을 퇴치하는 교육, 역시 필요하다.

- Micro Finance 사업을 통해서 수입증대는 물론 소자본을 운영하는 방식을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 개발 원조사업이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인 전망에서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

- 과거 군대에서 군인이거나, 혹은 군인들을 지원하거나 하는 일을 했던 여성들의 비무장화이외에 사회적 재통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성폭력의 문제에 대한 아무런 통계적 자료가 없으나, 이런 이슈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 여성들에 대한 현황에 대한 현장연구가 필요하다.

#### **D. UN Planning Officer**

한국 원조사업에 기대사항

- 아프리카 지역에 여성정책을 위한 지역 센터(Regional Center for Gender Policy)를 설립하여, 예컨대, 르완다에 설립하여, 이 지역을 중심으로 연구, 교육, 여성발전을 위한 지원을 하는 일종의 허브로서 중추적 기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이 센터를 중심으로 해당 수원국가는 물론이고 주변국가에 파급효과를 줄 수 있는 보다 지속가능한 여성을 위한 역량강화와 인권을 증진할 수 있는 체제를 갖

추는 것이 필요하다.

- 이러한 모델이 적어도 예컨대, 동부아프리카에서 성공했을 경우에, 다른 아프리카의 서부지역, 남부지역, 북부 지역 등으로 이러한 모델을 확산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

- 지역을 선정할 때, 이미 여성에 대한 인지도가 있는 국가, 가령, 르완다의 경우, 이번 선거를 통해서 30% 이상의 여성할당제 이상으로 많은 여성 정치인을 배출하였다. 이러한 것이 일회적인 것이 아니고, 보다 지속적으로 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정치적 차원에서 많은 여성정치인이 배출되었다고 하지만, 경제, 교육, 사회 제 부문에서 어떻게 사회 전체가 변화를 이루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 성주류화,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지도자의 역할은 중요한데, 이러한 점에서 이미 많은 정치인이 배출되었던 가령, 르완다의 경우에는 그 기초가 있어서, 이러한 센터 설립에 우호적이라 기대된다. 이를 통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여성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 또한 아프리카 지역 여성의 문제에 연구는 아직 미비하다. 보다 지속가능한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서, 보다 많은 여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데, 이러한 것 역시 지역센터 건립을 통해서, 해소될 수 있으면 기대한다.

- 더욱이 아프리카의 MDG달성을 위해서, 특히 빈곤퇴치를 위해서 가장 최우선의 방법은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많은 아프리카 지역의 경우, 여성을 교육하고, 여성의 역량을 강화했을 때, 가정은 물론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크다. 실질적으로 여성은 수입활동을 할 경우, 자녀나 가정을 위해서 사용하지만, 남성들의 경우, 술이나, 유흥비용으로 쓴다. 자녀의 삶과 나머지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여성의 정치, 경제, 사회적 역량강화가 중요하다.

- 한국정부가 이러한 센터를 통해서, 아프리카의 빈곤퇴치와 여성의 역량강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원한다.

- 이 센터는 동부아프리카 지역 공동체인 르완다 주변국가인 부룬디, 탄자니아, 케냐, 우간다와 또한 이곳 수단 등에 그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 소위 아프리카 여성정책의 싱크탱크가 탄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초기 한국정부의 지원을 통해서, 적어도 3년 정도는 센터를 공동으로 운영관리하고, 향후에는 자체적으로 운영해 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소위, 센터의 운영 및 인원조직 관리 등 인적자원의 역량강화나 관리뿐만 아니라, 물적자원의 관리등과 같은 다양한 경험을 배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많은 유럽 원조기구들이 많은 원조액을 이 곳 아프리카 지역에 투입하고 있기는 하지만, 종합적인 전략이 부재하며, 지속가능한 토대를 만드는 것이 부족하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정부는 보다 지속가능한 토대를 만드는 개발 원조 방향을 세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

## E. Gender Advisor of UNMIS

### 원조사업의 현황

- 여성에 대한 원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태도나 의식이 필요하지만, 아직도 의사결정권에 있는 사람들의 의식은 미비하다고 볼 수 있다.
- 설령 유엔에서는 여성의 역량강화나 성 주류화가 명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유엔 조직내부는 물론 수단의 정부차원에서도 수동적인 형태의 저항(passive resistance)이 있다. 결국 여성을 위한 혹은 성 주류화 사업이나 프로그램이 수행되기에는 많은 장애가 있다.
- 그래서 성 주류화를 위한 인식제고 및 수동적 저항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 부서간의 성 주류화나 여성을 위한 협의나 조정이 있어야 하지만, 이 역시 부족한 것이 실정이다.
- 성인지적 훈련이 실시되고 있으나, 수동적 저항을 막기는 어렵다.

### 젠더분석

- 여성에 대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역시 어려운 실정이다.
- 특히 여성 뿐 만 아니라, 아동들 여아와 남아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알 수 없는 것 역시 사업수행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고 볼 수 있다.
- 특히 성인지적 통계자료는 전무하다.
- 실제로 이 곳 지역에서 Gender based violence가 많다고는 하지만, 실제적인 통계자료는 없다. 또한 이러한 내용을 조사할 때,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 지 방법론 역시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 가령, 한 여성이 자신의 폭력을 말해야 할 때, 어디에다 호소할 것이며, 또한 그 가해자에 대한 대응방안이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기는 요원하다.

### 향후과제

- 여성의 90% 이상이 문맹이어서, 기본적인 문해교육이 필요하다.
- 또한 많은 여성병사이었거나, 혹은 감옥에서 수감생활을 한 여성의 사회적 재통합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
- 수단에서 전통적으로 다우리 제도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여성들의 이혼에 이르기까지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 전통과 문화에 대한 접근을 제대로 할 수없는 것이 현실이라서, 여성들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문화전통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 또한 조혼, 사고나 살해의 보상으로 딸이나, 자매를 결혼시키는 것과 같은 관습에 대해서 대응할 대책이 필요하다.

#### 원조사업에 기대하는 바

- 식수사업, 기초건강에 대한 사업들이 필요하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여성들의 기본적인 건강을 돌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식수 공급시설은 은 여성들 간의 물 확보를 위한 갈등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 또한 화장실 사업 등을 통해서, 기본적인 건강을 증진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은 산모 사망률을 줄이는 것 이외에, 아동의 사망률을 줄일 수 있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 병원시설, 보건소를 통해서, 여성들이 질병 시 접근이 용이하게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 학교에서의 하수시설 및 분뇨정비 시설은 여아들의 건강을 위해서 매우 필요하다. 사람들은 화장실이 없어서 아무데나 분뇨를 배출하고, 이로 인해서, 환경은 물론 냄새, 또한 사람들의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고 있다.
- 아주 기초적인 화장실 사업은 매우 필요하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사람들의 의식의 변화가 요구된다.
- 자신들의 문제를 의식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역량을 개발하는 것이 또한 필요하다.
- 가령, 식수와 하수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과 훈련조차도 필요한 상황이다.
- 물론 더 나아가서, 지속가능한 생계 마련을 위한 지원 사업 역시 필요하다.
- 공동체에 기초하여, 역량을 강화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 평가

- 아직은 성 주류화와 관련된 평가를 실시하고 있지는 못하다. 다만, 수단정부와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서, 젠더 문제를 논의하고, 방안을 모색하고 있기는 하지만, 수단 정부에서는 젠더 이슈는 사회복지, 종교문제와 같은 부서에서 있기 때문에, 다른 문제들과의 연계 속에서 언급되고 있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